

‘국제농업박람회’ 스마트 농업 정착 원년 선포

어제 개막...수출협약·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미래농업존 등 3개 존 8개 행사장...철저한 방역

2021 국제농업박람회가 21일 ‘스마트 농업 정착 원년의 해’를 선포하며 개막했다. 특히 개막식 후에는 농수산식품 수출 협약에 이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시작해 비즈니스박람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도의회 의장, 장석용 도교육감, 김승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2021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응원했다. 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미래를 꿈꾸는 스마트 농업’을 주제로 11일간 열린다.

박람회 홈페이지와 ‘오픈전남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한 행사는 전남도립국악단과 크로스오버 뮤직 그룹 오드아이의 식전 공연, 홍보대사 배아현씨의 신명나는 트로트 축하공연, 2021년을 스마트 농업 정착 원년으로 선포하는 개막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했다.

국제농업박람회 이사장인 김영록 지사는 개회사에서 “국제농업박람회는 우

리 농업이 전통 산업을 넘어 첨단기술 서비스 산업으로 도약했음을 알리고 미래 첨단 농업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코로나19로 힘든 농업인과 기업에 최상의 사업 기회를 제공할 비즈니스 장이자 세계 속에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선보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람회장은 ▲미래농업존(스마트농업 1·2관) ▲치유체험존(치유체험관, 힐링정원, 치유동물농장) ▲농식품 홍보존(농식품관, 농기자재관, 농기계시연장) 등 3개 존 8개 행사장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관람을 위해 QR코드 입장, AI피플카운팅, 주기적 소독 등을 통한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운영한다.

개막식에 이어 오후에는 미국 한남제인 플러튼점의 제1호 전남 상설판매장 운영사인 키트레이딩 류돈희 대표를 포함해 10명의 현지 운영사 대표가 공



21일 오전 나주시 삼포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1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도의회 의장, 장석용 교육감, 김승남 국회의원, 강인규 나주시장, 배아현 홍보대사 등 내빈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동으로 상설판매장 운영 활성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2천700만 달러 수출협약을 했다.

수출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우수 제품을 지속 발굴, 판촉행사 등을 통해 상설 판매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운영사는 현지 유통망을 활용해 판로를 확대하는 등

상설판매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수출협약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수산식품 기업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며 “협약 금액이 꼭 실현되도록 운영사와 전남도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협약을 시작으로 24일까지 4일간 스마트농업2관에서 전남도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현지 운영사를 비롯해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사, 중국 바이어 등 15개국 65개사 바이어가 참가하는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도 진행된다. 전남도 상설판매장은 전남 농수산식품

최대 수출국인 일본과 미국, 중국을 비롯해 신중시장으로 떠오르는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 21개 지역 현지 대형 마켓에서 별도 매장을 개설해 전남산 농수산식품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외동포는 물론 현지인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재정 기자

김지사 “윤 前총장 전두환 찬양 망언 취소·사과” 촉구

송갑석 “호남 짓밟은 망발...거만한 해명 경악”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지만 들끓는 호남 민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전두환 정권 ‘인재 기용’ 시스템을 벤치 마킹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데, 뚜렷한 사과 표현을 하지 않아 ‘반쪽 수습’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5·18 원흉 전두환을 찬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

해 “호남분들도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한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5·18 원흉 전두환 찬양 망언은 고귀한 피와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아직 아들이 아들이 않은 5·18 영령과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광주·전남 시·도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윤 전 총장은 전두환 옹호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 역시 5·18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에 적극 협조하고 호남에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도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광주학살 전두환 찬양” 윤석열 후보, 즉각 대선 후보를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오만과 독선, 천박한 역사관으로 호남을 짓밟은 망발에 대한 일말의 사죄는커녕,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 윤석열의

해명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광주는 물론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죄인,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고 대선 후보직을 사퇴해야 마땅한 윤석열이 누구를 보듬고 위로한다 말인가”라며 “참회와 사죄 없이 파렴치와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그야말로 본인의 몰모를 전두환과 판박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는 더 이상 윤석열의 사죄를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시대에 독재정권을 찬양한 함량미달 불량식품 윤석열은 즉각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관한 연구’ 본격 추진

21일, 시·도 광주전남연구원 간 위 수탁 협약 체결

광주시에 전남도, 광주전남연구원은 21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를 위한 위 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 따라 광주전남연구원이

수행한다. 사업비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2억원씩 부담한다. 연구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다.

이번 연구에선 오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계획 기간으로 둔 뒤 광주 전남의 미래와 상생을 위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된다. 또 경제 등 초광역적 협력 방안, 행정통합과 경제 통합(메가시티) 등 각 분야별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된다.

연구 내용은 ▲상생발전을 위한 경제 등 협력방안 연구 ▲경제통합(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 조합, 협의회 등 연구 ▲행정통합 연구 ▲시·도민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공문화 방안 연구 등이다. 연구는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

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시·도는 지난해 11월 2일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합의하고 통합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제반 사항에 관한 연구 용역을 1년 간 진행하기로 결정했었다.

향후 1년 간 연구가 마무리되면 양 시·도는 연구 결과로 도출된 내용에 대해 6개월의 검토 준비기간을 거쳐 시·도 통합 공문화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종형 기자

광주 ‘2025 세계양궁대회’ 유치 스페인과 경쟁

세계양궁연맹, 11월 현지실사·12월 집행위원회 평가 예정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에 나선 광주시가 스페인 마드리드와 경쟁하게 됐다.

광주시는 세계양궁연맹의 현지 실사와 개최예정지 평가를 위한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계양궁연맹(WA)는 대회 유치를 신청한 두 도시를 대상으로 다음 달 현지 실사를 할 예정이다.

세계양궁연맹은 대회 준비 프레젠테이션(PT), 현장 방문 등 현지 실사와 12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집행위원회 평가를 거쳐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양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6명을 배출한 세계적인 인적 인프라와 다수의 숙박시설 및 GYM, 공연마루와 같은 문화산업시설 등 대회 개최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상황을 입체적으로 소개하고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다수의 국제대회 개최 경험을 갖추고 광주국제양궁장 등 국제적 규모의 뛰어난 경기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마드리드는 200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19년 유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를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치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광주 시가 가진 국제대회 유치 노하우와 인적·물적 인프라 등의 강점, 양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힘입어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반드시 유치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승기 기자

전남 어르신 독감 무료 접종 순조

전남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70세 이상은 지난 12일부터 접종 중이며 지금까지 22만3천539명이 완료해 접종률은 49.5%다. 전국 평균 접종률(34.8%)을 웃돌고 있다.

65-69세도 21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시·군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무료 접종자 대상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65세 이상 접종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이나 시·군 콜센터 등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정부 방침에 의해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른 상담 ◀

철저한 면의 법철자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구인광고

캠코더, 카메라 남·여 수리기사 모집

- 평일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4대보험 적용
- 급여 : 면접 후 결정
- 나이 제한 없음

광주 소니 서비스 센터
062) 522-2000